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1)말테우리의 애환 간직한 바농오름

입력 : 2004. 03.12. 00:00:00



언뜻언뜻 시선을 잡아 끄는 잔설이 늦겨울 살풍경을 더해주는 날이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드센 바람 또한 탐사단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2월 14일 이뤄진 이날탐사는 바농오름 지그리오름 민오름이 예정돼 있다. 탐사단은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 들어서는 돌박물관 조성현장을 통해서 바농오름으로 향했다.

△바농오름

표고 552m의 바농(바농)오름은 이름부터가 특이하다. 바농은 바늘을 뜻하는 말이다. 한자로는 침약(針岳) 또는 침산(針山)이다. 반응악(盤應岳)이라 표기되기도 했다. 왜 바농오름이라 했을까.

역사적으로 바농오름 일대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일종인 침장이었다. 바농오름 동남쪽 일대 교래리를 중심으로 한 너른 벌판이 바로 침장에 해당된다. 침장(針場)이란 산마장(山馬場)의 일종이다. 즉 산마장은 해발 4백미터 이상의 산림지대와 초지대가 공존하는 지역에 형성된 조선시대 국마장의 하나다. 오늘날로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영목장인 셈이다. 산마장은 1700년대를 전후하여 침장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개편된다.

교래리 일대에 위치했던 침장은 동서 45리, 남북 15리의 광활한 면적을 차지했다. 또 탐라순력도에는 교래리에 객사나 산마장 운영시설이 표시되고 있어 당시 산마감독관이 거주했던 촌락이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침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바농오름이라 불리게 됐는지, 또는 바농오름에서 침장이 연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침장터였던 바농오름 동남부 일대는 현재 돌박물관 등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1999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1단계는 2005년 완공) 약 1천8백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조선시대 국마장의 하나인 침장터가 오늘날 제주문화의 상징공간인 돌박물관 부지로 탈바꿈 하고 있는 것이다.

바농오름은 분화구가 두개다. 정상부의 분화구는 둘레가 약 6백여미터, 깊이는 20~30m 정도다. 가시돋친 덩불숲과 초목이 많아서 일대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남측 사면은 수령 30년 이하의 편백나무로 조림돼 있다. 일설에는 이처럼 가시달린 초목이 많아서 바농오름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다.

바농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오름군이 마치 달려들 듯한 기세다. 작은지그리·큰지그리오름 민오름 절물오름 견월악 등이 종렬로 이어져 하나의 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그리오름

지그리(지기리)오름은 큰지그리(표고 643m)·작은지그리 오름(표고 504m)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웃해 있으면서도 말굽형 분화구가 정반대로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그리오름 일대는 낙엽활엽수림의 곳자왈 지대가 발달해 있다. 상록활엽수가 주로 분포하는 곳자왈과는 상층·하층 모두 종 조성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상층의 경우 때죽나무 서어나무 예덕나무 팽나무 동백나무 등이, 중층은 상산 쥐똥나무 가막살나무 등이 주요 식생을 차지한다. 하층은 산쪽풀이나 끌고사리 순갈일엽 송악 등이 분포한다. 오름사면에서는 복수초와 변산바람꽃 등을 볼 수 있다.

지그리오름 일대는 얼핏 보기에 건조한 지대인 것 같으면서도 이끼류 등 양치식물이 상당히 풍부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곳자왈 지대가 습도가 알맞아 양치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잡목이 우거진 속에서도 지그리 오름의 곳자왈 지대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공존하는 식생을 보여준다.

탐사에 나선 난대산림연구소 문명옥씨는 “지그리오름 일대는 희귀 양치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라산의 낙엽활엽수림과는 종조성이나 우점종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이 지역에 대한 식물학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전문가리포트]오름을 찾는 독수리들

바농 오름 상공에 독수리 1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탐사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보통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날씨가 따뜻할 때 상승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지만, 이날 매서운 바람이 불어대는 속에도 지상의 먹물거리를 찾고 있었다. 겨울 오름에는 동물들의 먹이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새들이 애를 먹는다. 특히 몸집이 큰 노루나 독수리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을 많이 해야 하므로 에너지 소비도 많아진다. 그나마 노루들은 곰솔 줄기를 타고 뻗어오르는 송악이나 마삭줄 같은 상록성 식물을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독수리는 다른 맹금류와는 달리 죽은 동물을 먹는 습성이 강하므로, 중산간 오름 일대에서 먹이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들 독수리들은 중산간 일대의 오름군에서 자연사하거나 뒹굴가미 또는 사고에 의해 희생된 노루나 가축을 먹으면서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서 월동하는 독수리들은 지난 2002년 11월에 18마리가 처음 도래한 것으로 2003년에도 번식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주에서 여름을 보내고 두 번째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우는 철새들의 일반적인 순리를 깨뜨린 것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독수리는 대부분 티벳이나 몽고에서 번식한 개체들로 주로 비무장지대에서 월동하는데, 죽은 먹이감을 고르다보니까 굶어죽는 개체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독수리들은 산북의 동서 오름군에서 최대 12마리까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먹이부족으로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탐사 도중 체오름, 서검은오름, 새미오름, 견월악, 대록산, 노루생이, 산심봉, 새별오름 등에서 단독으로 또는 서너 마리씩 확인되고 있다. 독수리가 일년 내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의 중산간 오름 일대가 독수리들에게 충분치는 않지만 먹이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완병 탐사위원(제주자연사박물관/ 조류분야)>

[전문가기고]바농오름과 침장

조선시대 제주도에에는 중산간 초지대를 중심으로 국영목장인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이 있었다. 바농오름 일대에 만들어졌던 침장(針場)은 조선후기의 산마장에 해당되었다.

산마장은 본래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이 선조33년(1600년)에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18세기에 제작된 고지도들에 의하면 산마장들은 산간 지역의 오름과 오름 사이의 초지대를 중심으로 여러 개로 분산,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 후기로 오면서 여러 산마장들은 가장 규모가 컸던 산마장을 중심으로 통폐합된 결과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되었다.

침장은 대체로 현재의 조천읍 교래리 바농오름과 지그리오름 그리고 조천읍 교래리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바농오름은 2소장과 침장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오름으로, 주변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높이의 오름이기 때문에 침장을 관리했던 목자들이 이 오름에 올라가 말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2)에 의하면 반응악(현재의 바농오름) 아래에는(북쪽) 침장(針場)이라는 목장 이름이 따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고지도에 나타난 침장과 산장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나중에 산마장을 통폐합하면서 이곳 바농오름 일대의 산마장 이름을 붙일 때 바농오름 바로 북쪽에 본래부터 위치했던 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침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정조실록’에 등장한다. 이에 의하면 “침장 내에 횡축장(橫築塙)은 백성도 역시 헐기를 원하니 우선 이에 따름이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조16년(1792)에 편찬된 ‘제주삼읍지’에 의하면 당시 산마장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침장은 동서 45리, 남북

15리, 상장은 동서 60리, 남북 25리, 녹산장은 동서 75리, 남북 30리였다. 현재 침장 지역은 남조로가 개통되면서 제주시와의 접근도가 향상됨에 따라 여러 관광기능 시설들이 입지하면서 토지이용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만익(제주공고 지리교사/ 제주목장사연구)>

[사진설명]화산구조선의 하나인 한라산~김녕선상에 있는 작은지그리 큰지그리오름. 백록담에서부터 흙붉은 오름, 물장오리, 건월악, 봉개민오름, 지그리, 바농오름, 새미오름을 거쳐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과 입산봉까지 일직선상으로 화산구조선이 이어진다.

[알림]3월 13일(토요일)은 영아리·물영아리오름 등을 탐사합니다. 탐사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본사 휴게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